퇴직 후 2년여간 살아온 삶의 궤적 엮다

송재영 작가 '퇴직이 설레기 시작했다' 출간

송재영 작가

최근 출간된 '퇴직이 설레기 시작했다'는 딱딱한 검찰청 수사관 생활을 31년이나 하고 경찰학박사 학위를 받은 다음 퇴직 후 브런치 글쓰기 강의, 법률 관련 강의, 청소년 멘토링, 주민자치 위원 등으로 활발한 이모작 인생을 살아가는 송재영 작가가 쓴 두 번째 책이다.

첫 번째 책은 지난 2020년 10월 1일 행복에너지 출판사에서 발간된 '인생이 설레기 시작했다.'라는 책으로 그간 독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두 번째 책은 퇴직하여 2년간 좌충우돌하며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며 겪은 일을 기록한 책으로 우리에게 많은 교훈적 삶을 느끼게 해주는 내용이다.

이 책에는 순례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의 로망이기도 한 산티아고 순례길을 부부가 함께 보름 이상을 걷기도 하고, 제주에서 1년 6개월 동안 부부가 함께하는 등 누구나 꿈꾸는 삶을 직접 실천한 삶을 기록했다.

책을 읽으면서 작가가 끊임없이 행했던 도전의 삶이 잔잔한 여운과 함께 남는다.

나도 한번 시도해 보고 싶은데도 아직도 무엇이 그리 많이 세속에 얽매여 사는지 감히 도전조차 못하고 있으니 나는 송 작가에 비하면 내 인생은 아직도 '미생'이라는 생각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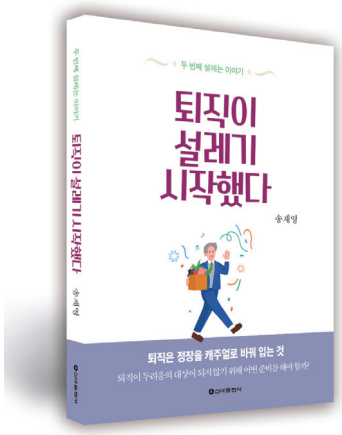
송 작가는 남들이 가는 편안한 길을 마다하고 개척자적 자세로 이모작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느낀 소감을 진솔하게 그려내어 이 책 한 권에 묶었다.

작가의 도전적 삶의 글을 통해 '우리에게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는 '북극성과 같은 푯대가 가리키는 삶'을 일깨워준다.

'인생 동안 가장 긴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행이고, 더 긴 여행은 가슴에서 팔이나 다리까지의 여행'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가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송 작가는 생각만 하고 사는 우리와 달리 목표를 세우면 반드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고 실제로 행동하며 실천하는 특이한 이력의 작가다. 그리고 그 길을 뚫기



퇴직이 설레기 시작했다 표지

위하여 노력한 내용을 글로 남겨놓아 우리에게 북극성과 같이 변하지 않는 푯대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존경스러운 분이다.

우리 선조들이 이야기하던 팔불출이라는 말 중의 하나가 부인 자랑이라고 하는데, 팔불출의 하나인 부인 자랑을 은근하게 하여 부부 금실을 드러내기도 한다.

누구나 퇴직은 두렵고 어렵고 힘든 것임에도 그것을 도전정신으로 미화해서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설레는 마음으로 살아내는 작가야말로 대단한 정신력을 가진 역발상의 귀재라는 생각이 든다.

돌아가신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이 아무리 밤늦게 잠들어도 새벽 4시에 일어나 일터로 나가서 직원들에게 도전정신을 심어주며 "해보기나 했어!"라며 새로운 길을 개척하던 모습을 우리는 송 작가에게서 보게 된다.

우리는 누구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하여 설렘으로 승화하여 부단히 노력하다 보면 멋진 이모작 인생을 만들 것이라고 감히 단언해 본다.

우리나라 국민은 프랑스가 120년에 달성한 초고령사회를 단 26년 만에 달성할 정도로 초고속 질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멋진 이모작 인생을 살아내려면 송재영 작가를 닮아가며 살아야 할 것이다.

우리 인생을 살아냄에 있어 도전하는 자에게 실패란 없고 다만 그 도전하는 과정에서 시련이 약간 있을 뿐이다.

그러나 우리가 도전하지 않고 주저앉는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될 것이다.

작가는 "퇴직이란 정장을 일상복으로 바꿔 입는 것이고, 온실 속에서 지내다가 야생으로 나와 생활하는 것과 같다."고 표현한다. 또한, "처음 가는 길이라 시행착오도 겪고 힘든 일도 많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것이기에 사회생활도 다시 배워야 한다,"며, "날씨가 변화무쌍하고, 영양도 척박하며, 기온도 들쑥날쑥한 야생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쓴" 작가는 그 기록을 이 책에 담아내어 우리에게 교훈적인 삶의 모습을 남겨주었다.

"수사관 퇴직 후 좌충우돌 뒤로 가지 않고 좌절하지 않으며, 오직 앞으로만 전진하며 살아낸 작가의 지난 2년간의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작가는 "야생에서 자란 꽃은 투박하지만, 소박한 자신의 개성을 닮고 있어 매력적"이라는 소신을 가지고, 앞으로도 작가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살아낼 인생과 그 궤적을 기록할 책이 무한히 기대된다.

그 삶의 궤적은 50년대와 60년대에 태어나 우리의 경제성장과 함께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한 바 있고 부모를 봉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마처 세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서산대사의 "눈 덮인 길을 걸어갈 때는 함부로 어지럽게 걷지 말라. 오늘 내가 밟고 가는 이 발자국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니"라는 시가 있다.

앞서가는 사람은 뒤에 올 사람을 위하여 삐뚤빼뚤한 삶을 살지 말고 곧고 빠른 길을 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데 그 표본이 되는 삶을 살아내며 그 길을 기록해 내는 송재영 작가에게 무한한 존경과 더불어 감사의 마음을 보낸다.

앞으로 송 작가의 문운이 더욱 창성하고 더 좋은 책을 발간하여 우리에게 길잡이가 되는 삶을 살아주기를 바라며, 두려움을 극복하고 퇴직 후 설레는 삶을 살아내는 송 작가의 삶을 적극 응원한다.

끝으로, 신아출판사에서 지난 10월 1일에 출간한 송재영 작가의 두 번째 작품 '퇴직이 설레기 시작했다.' 책이 독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는 애독서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필자의 소박한 바람이다. /이만호 기자

김용택 시인 초청 국악콘서트 '다담'

국립민속국악원, 27일 예음헌서 진행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중현)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예음헌에서 차와 이야기가 있는 국악콘서트 〈다담〉을 개최한다.

11월 〈다담〉의 이야기 손님에는 시인이자 수필가, 아동문학가로 활동하며 한국 서정시의 대표 시인으로 자리잡은 김용택 시인을 초청, 김용택 시인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일상의 섬세한 순간들을 시로 풀어내며, 그의 시는 교과서에 실리거나 노래로 불리기도 했다.

시인은 전라북도 임실군 진메 마을 출신으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모교에서 학생들과 함께한 시를 책으로 엮는 등 교육과 문학에 헌신해왔다.

대표작으로는 〈섬진강〉, 〈그 여자네 집〉, 〈시가 내게로 왔다〉, 〈콩, 너는 죽었다〉 등이 있으며, 섬진강을 배경으로 한 시를 통해 '섬진강 시인'이라는 별칭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이번 공연에서는 김용택 시인이 자연, 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국립민속국악원 국악연주단의 연주가 더해져 관객들이 자연과 음악, 그리고 문학의 조화로운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고, 전주MBC 목서윤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공연 1시간 전부터 공연장 로비에서 계절에 맞는 차와 다과를 무료로 즐길 수 있다.

국립민속국악원 누리집(namwon.gugak.go.kr)과 카카오톡 채널(국립민속국악원 친구추가) 및 전화(063-620-2329)로 예약 및 공연 소식을 안내받을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립국악단, 코리아페스티벌 참가

2년 연속 초청… 16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움 알 에마라트공원 공연장서 공연

남원시립국악단이 2년 연속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코리아페스티벌 2024(Korea Festival 2024) 초청받아 우리 전통음악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전한다.

남원시립국악단은 오는 11월 16일 저녁 8시 30분, UAE 아부다비 움 알 에마라트공원(Umm Al Emarat Park) 공연장에서 열리는 코리아 페스티벌(Korea Festival 2024) 폐막 무대에서 "남원국악 아랍에미리트를 만나다."를 주제로 공연을 선보인다.

깊은 울림이 있는 전통 판소리와 함께 국악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국악관현악 무대를 준비해 우리 소리의 매력을 펼치며 아랍에미리트 현지인들과 국제 방문객들에게 전북특별자치도와 남원시를 홍보할 예정이다.

코리아페스티벌은 아부다비에 위치한 한국대사관 주최 한국문화원이 주관하는 행사로 올해 12회로, 아부다비 움 알 에마라트공원에서 개최된다.

오는 11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축제에는 남원시 외에도 경기도 광주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관광공사,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등 19개 단체 130여명이 참석 한국전통공연, 한류, 한식 등으로 한국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남원시립국악단이 2018년 공연 후 코로나 팬데믹으로 단절되었던 교류를 다시 이어 지난해부터 2년 연속 Korea Festival의 무대에 서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관광두레 정유진 PD 초청 '전북지식살롱' 8회차 강연

지역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임실군 관광두레 정유진 PD가 '지역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전북지식살롱(시즌2)'(이하 지식살롱) 8회 차 강연에 나선다.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윤)은 13일 오후 5시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 1층에서 '전북지식살롱(시즌2)'(이하 지식살롱) 8회 차 강연에 나선다고 밝혔다.

임실군 관광두레 정유진 PD가 '지역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강연에는 지역 관광 및 유휴 공간 활성화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포스터 내 QR 코드 또는 신청 링크(han.gl/8ACJU)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주요 내용은 △지역의 스토리텔링,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임실창고 1964, DIDIER 카페를 사례로 한 유휴 공간 활성화 등 지역으로 사람들이 찾아오게 만드는 노하우에 대해 알리고 공유할 예정이다.

정유진 PD는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 두레사업의 임실군 관광두레 PD로 주민 주도의 지역 관광상품 개발과 홍보·판매 지원해 성과를 거뒀다.

/장은성 기자

제5회 무주군 꿈의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개최

제5회 무주군 아란 꿈의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가 14일 저녁 6시 30분부터 무주군 전통생활문화체험관에서 개최된다.

이날 연주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무주청소년수련관이 주관하며 무주군과 (재)쌍백합청소년육성회, 무주성당이 후원한 가운데 펼쳐질 예정이다.

이날 무대에 오르게 될 69명의 연주자(강사 포함 단원)들은 바이올린과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 플루트, 클라리넷, 바순, 호른, 트럼펫, 트럼본, 타악기로 어우러져 드보르작의 '신세계'를 비롯한 '아리랑'과 앤드류 로이드 웨버가 작곡한 '오페라의 유령' 등 6곡을 연주하게 된다.

무주군 아란 꿈의 오케스트라 안미영 음악감독(지휘)은 "무주군 지역 내 초·중학생들로 구성된 단원들이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협동심과 다양한 장르에 대한 이해, 취미·관심 영역 확대라는 소중한 경험을 쌓고 있다"라며 "아이들이 지난 1년간 열심히 연습하며 준비한 곡들을 함께 감상하시면서 음악이 주는 행복을 만끽해 보시라"고 전했다.

한편, 무주군 '아란 꿈의 오케스트라'는 무주청소년수련관이 2020년 꿈의 오케스트라 신규 거점기관으로 선정(주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되면서 운영(매주 월·목요일, 방과 후 3시간 지도)돼 오고 있으며, 관내 9~16세 청소년 54명이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국립전주박물관, '해설이 있는 판소리, 춘향가 눈대목' 16일 공연

국립전주박물관(관장 박경도)은 현재 진행 중인 특별전 '서울구경 가자스라, 임을따라 갈까부다 - 조선의 베스트셀러 한양가와 춘향전' 연계 공연으로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중현)과 함께 '해설이 있는 판소리, 춘향가 눈대목'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널리 알려진 판소리 춘향가 중 '십장가'를 국립민속국악원 단원(소리: 김현주, 북: 서은기)의 해설과 함께 직접 들어 볼 수 있는 자리로, 오는 16일 오후 2시 국립전주박물관 기획전시실 내 무대에서 진행된다.

특히 춘향가의 눈대목 중 하나인 십장가는 변 사또의 수청을 거부한 춘향이가 매를 맞는 내용으로, 10대의 매질을 당할 때마다 숫자에 맞춰 자신의 심정을 읊은 부분이다.

/장은성 기자

한국전통문화전당, 한국청각장애인미술협회전 개최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오는 14~19일 3층 기획전시실에서 '제30회 한국청각장애인미술협회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전시는 올해 30주년을 맞은 한국청각장애인미술협회 회원전으로, 한 세대를 치른 협회가 다음 세대의 정신과 예술경지를 보여주며 새롭게 거듭나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

전시에는 전국 각지의 청각장애 미술인 22명과 싱가포르, 중국, 일본 작가 10명 등 총 32명이 참여해 청각장애인들의 감각과 감성, 수예적 기능이 담겨 진면목을 그대로 드러낸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정적 △공명도 △차원세계의 창구 △여악도 △해피마크라메 등 회화, 서예, 사진, 공예를 비롯한 전 분야를 아우르는 다양한 작품이 전시된다.

이봉화 한국청각장애인미술협회장은 "그간 열렸던 전시를 통해 우리도 정상인 못지않게 충분히 예술적 능력과 역량을 발현할 수 있음을 꾸준히 증명해 왔다"며 "스스로 불가능이라는 틀에 갇혀 포기하는 예술인이 없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도영 원장은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장애인들의 활동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면서 "이번 전시를 통해 장애 예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정읍시 마을공연장 프로그램, 시민뮤지컬로 화려한 피날레

정읍시와 시 지역활성화센터는 지난 10일 연지아트홀에서 '마을공연장 프로그램'의 마지막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공연은 시민뮤지컬단(단장 김기진)이 주연을 맡은 뮤지컬 '그날을 기약하며'(원작 영웅)로, 약 200명의 시민이 참여해 뜨거운 호응을 보냈다. 공연은 오후 4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으며,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감동을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뮤지컬 '그날을 기약하며'는 시민뮤지컬단이 정성을 다해 준비한 작품으로, 지역 주민들의 열정적인 참여가 돋보이는 무대였다. 관객들은 시민들의 열정과 재능이 빛나는 공연에 감동을 받았고, 큰 박수가 공연장을 가득 채웠다.

이번 공연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주거지지원형)의 일환으로 진행된 마을공연장 프로그램의 마지막 일정이었다. 프로그램은 뮤지컬 2회와 시민음악회 2회로 총 4회에 걸쳐 운영됐으며, 지역 주민들이 공연과 문화체험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공연에서는 관객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라면이 지역 내 공유냉장고에 전달될 예정이어서 의미를 더했다. 관객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기부는 지역 사회에 나눔과 협력의 정신을 실천하는 계기가 됐다. /정읍=김대환 기자